

신숙주와 집현전 학자들

민현구

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

1. 머리말

신숙주는 조선 초기의 빼어난 문인, 학자, 정치가였다. 세종 때부터 성종 때까지 활약한 그의 생애를 훑어보면, 학술, 문화와 정치, 외교의 중심에 위치했던 그의 존재를 확인하게 된다. 조선이 경국대전 체제를 통해 유교 국가를 완성시키고, 정제된 양반 문화를 꽃피우는 데 그는 매우 중요한 구실을 했던 것이다.

신숙주의 다양한 활동 가운데, 학술 문화적 측면에 주목할 경우, 그의 집현전을 무대로 한 초기의 것이 백미를 이룬다. 천재적 소질을 갖추고 과거를 통해 출사한 그는 곧 세종의 지우를 받아 집현전에서 활약하면서 한글의 창제에 기여하는 등 눈부신 모습을 보여 주는데, 이러한 상태가 문종 때까지 이어졌다. 세종 23년(1441)에 그가 25세의 나이로 집현전 부수찬에 발탁된 때로부터 문종 2년(1452) 왕이 별세하자 집현전 직제학으로 문종의 행장(行狀)을 편찬하는 36세 때까지가 그에 해당된다.

신숙주가 집현전에 발을 내디뎠을 무렵, 세종의 위대한 치적에 힘입어 조선은 정치적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두드러진 발전을 이룩하고, 학술 문화면

에서도 융성의 기운이 무르익으면서 집현전은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에 집현전 학사로 발탁되는 성삼문, 이개, 하위지, 박팽년 등은 같은 연배의 친구, 동학으로서 한 무리를 이루며 세종의 총애를 받았는데, 오랜 경륜을 쌓고, 위대한 치적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들어선 세종으로서는 자식 같은 이들 젊은 인재들을 각별히 사랑하고 국가의 동량으로 키우며 치세에 활용코자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여건 아래 신숙주는 집현전에서 활약하였다.

이 글에서는 신숙주가 학술 문화 면에서 보인 활약과 업적을 집현전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세종과 집현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숙주가 집현전을 근거로 활약하는 구체적 모습을 눈여겨보고, 더불어 교유하였던 집현전 학사들의 모습도 추적해 볼 것이다. 이것을 통해 걸출한 문인, 학자로서의 신숙주의 면모가 더 선명히 드러나고, 그 무렵 집현전의 활기찬 모습도 우리 눈앞에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2. 세종의 숭문 정책과 집현전 설립

세종이 즉위한 지 1년 6개월 뒤에 집현전이 설립되었다. 왕위에 오르자 곧 경연(經筵)을 설치하여 학문에 깊은 관심을 보여준 세종은 문풍(文風)을 진작시키기 위해 젊은 유사(儒士)를 뽑아 경서를 강습(講習)케 하는 학술 연구 기관으로 집현전을 새로 세웠던 것이다. 이것은 세종의 원대한 학술·문화 시책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빛나는 문화적 황금기의 기틀이 마련되었음을 뜻한다.

세종이 국왕으로서 경연에 참석하면서 먼저 느낀 것은 경연의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왕에게 유교 경전과 사서(史書)를 진강(進講)하는 경연은 정치적 학술적 성격을 지니는 것이지만, 왕과 경연관의 수준과 열의가 가장 중요한 변수였다. 그런데, 이미 상당한 학문적 성숙에 도달한 세종에게 경연관들은 학식이나 열성 모든 면에서 딸리는 형편이었고, 그것이 왕에게 실망감과 우려를 자아냈다. 결국 문제의 소재는 경연관들이 일에 쫓겨

충분한 강의 준비를 할 수 없었고, 더 나아가 그들의 학문적 소양이 빈약하다는 데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따라서 장차 새로운 인재를 뽑아 학자로 양성하여 경연의 질을 높이고, 학문 수준을 향상시키는 일이 매우 긴급하다고 여겨졌다.

또한, 당시 사대문서(事大文書)의 작성이 현안으로 떠올랐다. 조선은 명(明)과 사대적 외교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조선 건국 초 명은 조선이 보낸 표전문(表箋文) 가운데 경박하고 모욕적인 문구가 있다 하여 그것을 지은 사람을 압송해 보내라고 하는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을 정도로 외교 문서 작성은 국가적으로 커다란 중요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내용, 형식, 표현 등 여러 면에서 명에 책잡히지 않을 외교 문서를 짓는 데에는 고도의 학문적 식견과 문학적 소양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인재의 양성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명에서 오는 사신을 맞아 영접하는 데에도 학문과 문장이 출중한 인재를 필요로 했다. 그러나 왕조 교체기에 활약한 권근(權近)과 같은 대가들은 사라진 상태였다.

이처럼 경연관의 수준을 높이고, 명과의 사대적 외교 관계를 감당할 인재가 필요하다는 안팎의 현실적 문제가 집현전 설치의 원인을 제공했지만, 다른 한편, 조선 왕조 개창 이래 상당한 기간이 흘러 정치적 안정이 이루어진 단계에서, 문물 제도를 정비하고 학술 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도 상당한 작용을 했다. 다시 말하면, 전란과 정변으로 얼룩진 격동기를 거쳐 왕권의 확립이 이룩된 조선의 당면 과제는 이제 문치를 통해 사회의 안정·교화와 학술·문화의 창달을 도모하는 일이었고, 이와 같은 대세와 여망을 깨달은 세종이 집현전 설치에 적극적 태도를 취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세종 2년(1420) 3월 왕궁 안에 집현전이라는 관사(官司)가 마련되고, 그 직제가 공포되었는데, 영전사(領殿事) 대제학(大提學) 등의 겸직과 더불어 부제학(副提學) 이하 직제학(直提學), 직전(直殿), 응교(應敎), 교리(校理), 수찬(修撰), 박사(博士), 저작(著作), 정자(正字) 등의 녹관(祿官), 즉 전임관(專任官)을 두도록 하고, 겸관들과 더불어 실질적인 집현전 학사로서 녹관

10명이 임명되었다. 문신으로 재행(才行)이 뛰어난 인재로 충원된 집현전 학사들은 경전과 사서의 강론(講論)에만 전념케 하며, 그들 모두가 경연관을 겸임토록 하였다. 집현전은 이렇게 탄생되었다.

세종은 먼 장래를 내다보면서 집현전을 키웠다. 집현전 학사는 되도록 과거에 막 합격한 젊고 총명한 인재 가운데에서 엄선하였고, 그들에게 학업을 독려하여 학술과 문예의 수준을 높이게 했다. 집현전 학사는 처음 10명에서 출발한 이후 점차 늘어나 32명에까지 이르렀으나, 세종 17년에 20명으로 정비되어 나중까지 그 인원을 유지하였다.

집현전은 학술 연구 기관으로 출발하였지만, 경연을 비롯하여 그 자체의 업무가 있었다. 세종은 연소(年少)한 집현전 학사들에게 오로지 공부에만 전념할 기회를 주기 위해 사가독서(賜暇讀書) 제도를 마련했다. 그것은 선발된 젊은 학사에게 휴가를 주어 집현전의 업무에서 벗어나 오로지 독서만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세종 8년에 권채(權採), 신석견(辛石堅), 남수문(南守文)의 세 사람이 뽑혀 집에서 독서에 전념하게 된 것이 첫 번째 사례였다. 이것이 발전하여 세종 대 말엽에는 집을 떠나 조용한 산 속의 사찰에서 독서하게 하였고, 뒷날 성종 대에는 용산(龍山)에 독서당(讀書堂)이 특별히 마련되기에 이르렀다.

집현전 학사로 선발되면, 다른 부서로 옮기지 않고 계속 학문 연구에만 매달리도록 하였다. 세종은 그들에게 「학술만을 오로지 일로 삼아 종신토록 계속하라(專業學術 期以終身)」고 당부하였는데, 실제로 10년 이상 집현전 학사로서 계속 근무한 사람은 3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학술 연구와 인재 양성은 표리 관계에 있는 것으로 많은 시간과 지속적 노력이 필요한 것임을 세종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집현전 학사들은 융숭한 대우를 받았다. 그들은 구임(久任)의 특례에 따라 지방관을 거치지 않고 집현전에서만 자체 승진할 수 있었다. 그들은 조화 때 각기 품질(品秩)에 따라 늘어설 때 반두(班頭)로서 앞자리를 차지했고, 모든 관리의 부정과 비리를 조사하고 탄핵하는 사헌부(司憲府)의 규찰(糾察)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국가에서 책이 나오면 그들에게 먼저 반급하였으며, 집현전에서 직숙(直宿)을 하는 학사에게는 왕이 행차하거나 음식을 보내어 격려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 세종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신상을 파악하고, 배려를 아끼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당시 사람들은 집현전 학사를 신선처럼 우러러보았다고 한다.

집현전은 뒷날 세조 2년(1456)에 혁파되기까지 37년에 걸쳐 존립되는데, 세종 10년(1428) 이후 세종이 승하하는 그 32년(1450)까지 20여 년간 전성기를 누렸다. 집현전 설립 초기부터 집현전 학사들은 경연관으로, 또는 왕세자를 위한 서연관(書筵官)으로서 시강(侍講)의 임무를 지녔고, 외교 문서 작성, 시관(試官) 차출, 사관(史官) 업무 수행 등 여러 가지 일을 맡았다. 그러나 세종 10년경에 이르러 그 동안 집현전을 통해 양성된 인재들이 당당한 학자로서 큰 구실을 하게 됨에 따라 고제(古制)의 연구와 편찬(編纂)·제술(製述)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이로부터 집현전은 세종 대 문화 융성의 중심에 위치하게 되었던 것이다.

유교를 국시(國是)로 내건 조선은 정치와 사회의 유교화를 위해 당·송을 중심으로 중국의 고제(古制)를 연구하여 이론적 토대를 마련코자 했다. 그리하여, 별도로 마련된 의례상정소(儀禮詳定所)와 더불어 집현전은 방대한 고제 연구를 수행하며 세종의 정치 운용에 도움을 주었다. 아울러 유교 경전, 역사서, 중국 문학을 위시해서 군사, 지리, 천문, 역수(曆數), 의학, 농업 기술 등 여러 방면의 서적을 편찬·주석·간행하는 일에 집현전은 주도적 역할을 했다. 그 성과는 바로 세종 대 찬란한 문화 발전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었다.

집현전은 세종 대 말엽에 이르러 왕의 건강이 악화되고 왕세자의 섭정(攝政)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일부 학사가 정무(政務)의 직에 나아가는 약간의 변화를 겪지만, 학술 연구의 중심 기관이요, 문화 창달의 본거지로서 갖는 권위와 중요성에는 아무런 동요가 없었다. 그러한 가운데 민족 문화의 백미인 한글의 창제를 비롯한 수많은 학술·문화적 성과가 나타나고, 조선의 정치와 문화를 이끌어 나갈 신숙주를 위시한 우수한 인재 다수가 배출되었던 것이다.

3. 집현전에서 보인 신숙주의 활약

신숙주가 처음 집현전 학사가 되는 것은 세종 23년(1439) 가을 집현전 부수찬(副修撰)에 임명됨으로써인데, 당시 그의 나이는 25세였다. 태종 17년(1417)에 나주(羅州)에서 태어난 그는 일찍이 윤희(尹淮)의 문하에 나아가 배우고, 그 손녀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의 부친 신장(申穰)은 과거를 통해 공조참판, 대제학에까지 오른 세종 대의 명신이었는데, 신숙주가 17세 때 별세했다. 22세에 진사사에서 장원을 한 신숙주는 23세 때 문과에 3등으로 합격하여 전농시 직장(直長)에 보임되었다. 그러나 곧 파직당하는 불운을 겪었고, 25세 때 주자소 별좌(別坐)를 거쳐 비로소 집현전 관원으로 발탁되었던 것이다.

이 무렵은 세종의 빼어난 치적이 결실의 단계에 접어드는 시기였다.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제도 문물의 정비가 크게 이루어져서 사회는 안정되고 민생도 개선되었으며, 영토 확장책으로 4군 6진의 개척이 활기를 띠고 진행되는 중이었다. 세종의 건강이 내리막길을 걸으며 특히 안질(眼疾)이 큰 고통을 주어 경연은 열리지 못하는 상태였으나, 모든 정무는 때때로 세자의 도움을 받으며 원활히 처리되고 있었다. 학자적 군왕으로서는 드물게 성공적인 통치를 이끌면서 세종은 인간적으로도 원숙한 경지에 다다라 있었다.

집현전은 이미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조정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세종 대 문치 정책의 본거지와도 같았던 집현전은 고제 연구와 편찬 제술의 업적을 이미 크게 쌓았고, 집현전 학사로서 직제학이나 부제학 같은 상위직을 거친 사람들 다수가 다른 주요 관서의 당상관으로 승진하여 요직에 있었다. 세종의 관심과 애착이 컸을 뿐 아니라, 부왕 못지 않게 학구적이었던 세자도 집현전에 커다란 정성을 쏟았다.

집현전 학사가 된 신숙주는 별천지와 같은 이 학술 연구 기관에 들어와 먼저 방대한 장서에 크게 매료되었다. 경연을 맡는 집현전에는 고금의 전적들이 빠짐없이 수장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것들을 독파하기 위해 그는 숙직을

자칭해 도맡아 하면서 밤늦게까지 책과 씨름을 했다. 또한, 신숙주는 비슷한 또래의 동료 학사들과 어울리면서 자극을 받고, 면학의 자세를 새로이 가다듬었다. 이 무렵 집현전 학사는 모두 20명이었는데, 젊은 사람들 여럿이 비슷한 시기에 들어와 집현전은 더없이 활기찬 모습을 띠었다.

신숙주는 집현전에 들어온 다음 해에 사가독서의 행운을 잡을 수 있었다. 세종 24년, 그가 26세 때에 왕은 성삼문, 박팽년, 신숙주, 이개, 하위지, 이석형 등 촉망받는 신진기예의 학사 6명에게 사가독서를 명했다. 이번에는 특별히 조용한 산사(山寺)를 택해 삼각산 진관사(津寬寺)에 머물도록 했다.

이 때 함께 선발된 사람들은 하위지(31세)가 가장 나이가 위었고, 이석형(28세)이 그 다음이요, 박팽년, 신숙주, 이개는 모두 동갑이었으며(26세), 성삼문(25세)이 바로 아래였다. 그러나 과거 합격으로 따지면 박팽년이 가장 앞서고, 다음이 이개, 뒤이어 하위지와 성삼문이 같은 해에 합격했고, 이어서 신숙주, 그리고 이석형이 가장 늦었다. 이들 가운데 하위지와 이석형은 장원 급제자였고, 뒷날 성삼문도 문과 중시(重試)에서 장원을 하였다. 당시 조선에서 으뜸가는 인재들이 집현전에 모였고, 그들이 집과 직장을 떠나 한적한 곳에 함께 기거하면서 독서하고 토론하며 면려(勉勵)하는 기회를 얻었던 것이다. 수개월간 신숙주는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으며, 자신의 자품과 실력을 나타낼 수도 있었다. 이번의 사가독서를 통해 역량을 키우고 우의를 다짐으로써 신숙주와 그들은 세종 대를 빛나는 문화의 황금기로 마무리 짓는 동량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신숙주는 27세 때 통신사의 서장관으로 약 8개월간 일본에 다녀왔다. 대부분 사람들이 꺼려하는 험난한 사행(使行)을 통해 그는 먼 일본에까지 문명을 날렸고, 대마도와 계해약조(癸亥約條)를 체결하는 데 참가하여 외교적 식견을 넓혔다. 무엇보다도 세종의 두터운 신임과 사랑을 받게 된 점이 큰 의미를 지닌다.

그 이후 신숙주는 집현전 학사로서 세종의 뜻을 받들어 훈민정음을 완성하고, 그것과 관련하여 운서(韻書)를 편찬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였다. 세종

25년 10월에 그가 일본으로부터 돌아온 지 2개월 뒤인 12월에 이르러 왕은 훈민정음 28자를 친제하는 일을 일단락지어 그것이 안팎에 드러나게 되었고, 그로부터 세종은 친제한 훈민정음을 이론적으로 다듬으며 국어의 표기(表記)를 바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커다란 규모의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신숙주를 비롯한 집현전 학사들에게 임무를 부여했던 것이다.

세종 26년 2월 신숙주는 집현전 부수찬(副修撰)으로서 왕명을 받아 집현전 학사인 최항, 박팽년, 이선로, 이개와 돈녕부 주부(主簿) 강희안 등과 함께 운회(韻會)를 훈민정음으로 번역하는 일에 착수함으로써 그 연구 사업에 발을 내디디었다. 이 때의 운회 번역에는 세자와 수양대군, 안평대군도 참여하여 일을 관장케 하였다. 이 일은 뒷날 동국정운(東國正韻) 편찬의 출발 작업이라 할 수 있는데, 통용되는 한자의 음을 정확히 표기하여 그릇된 것을 바로잡고, 이들 한자음을 포함하여 모든 국어의 표기 수단인 훈민정음의 구성 원리와 음운 체계를 가다듬는 데에 관심을 두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신숙주는 그의 명석한 자질과 두터운 학문적 소양을 바탕으로 언어와 음운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며 그 연구 사업 진행에 크게 기여했다. 당시 빼어난 언어학자이기도 했던 세종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헤아리면서, 성삼문과 더불어 요동에 있는 명(明) 한림학사 황찬(黃贊)을 10여 차례나 찾아가 질문을 하는 등 그의 활약은 두드러졌다. 그때 신숙주는 황찬으로부터 희현당(希賢堂)이라는 당호를 받기도 했다.

집현전을 중심으로 하는 훈민정음의 완성 및 운서의 정리를 도모하는 사업의 총지휘자는 세종이었다. 앞서 운회의 번역을 맡았던 것으로 나타나는 6명과 성삼문, 그리고 예조판서 정인지를 합한 8명의 학자가 핵심 인물인데, 그 가운데 가장 연배가 높고 대선배 격인 정인지와 언어 이론에 가장 밝았고 세종과의 호흡이 잘 맞았던 신숙주가 중요한 구실을 하였다. 이 사업은 세종 28년(1446) 9월 훈민정음의 그 독자적 음운 이론을 밝힌 해례(解例)를 곁들여 정식으로 훈민정음으로 반포됨으로써 하나의 단락을 지었다.

이어서 훈민정음을 사용한 최초의 책으로 용비어천가가 세종 29년에 편

찬 반포되었는데, 신숙주는 물론 그 편찬에 참여하였다. 같은 해 가을에 동국정운이 완성되자 세종은 신숙주에게 서문을 짓게 하고 간행케 하였다. 이는 실로 훈민정음을 이론화 실용화하며 운서를 정리하는 큰 사업의 또 다른 단락을 뜻하는 바로서, 훈민정음의 정확한 소리를 통해 그간 흐트러진 한자음을 바로잡는 큰 사업이 마무리되었던 것이다. 그 후에도 세종과 신숙주의 성운(聲韻)에 대한 관심은 간간이 나타나고, 그것이 뒷날 단종 때 ‘홍무정운역훈’으로 귀결되지만, 대체적으로 보아 여기에서 커다란 단락이 지어진다고 하겠다. 신숙주는 집현전을 무대로 4년간 여기에 매달렸는데, 이 시기를 전후해 세종 대를 빛나게 하는 여러 가지 편찬 사업이 결실을 맺고 있었다.

신숙주는 세종 30년 세자시강원으로 옮겨가 세자를 시강하는 일을 맡았고, 여기에서 4품의 대부(大夫) 관계에 올랐다. 그러나 이 무렵에도 그는 집현전이라는 큰 울타리를 아주 벗어난 것은 아니었고, 사관을 겸하며 고려사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세종 32년, 그가 34세 때에 명의 사신 예겸(倪謙) 등이 오자 그와 상대할 수 있는 가장 빼어난 문사로서 그가 성삼문과 함께 발탁되어 한 달 남짓 그들과 종유(從遊)하면서 시문을 주고 받았는데, 이를 계기로 그의 문명은 멀리 명에까지 알려지게 되었다. 바로 이 해에 세종이 승하하였다.

문종 대에 들어와 신숙주는 사헌부로 옮겨 갔다. 왕이 특별히 발탁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약 1년간 장령, 집의를 역임하며 활발한 언론 활동을 하다가 집현전 직제학으로 승진하여 친정으로 되돌아왔다. 외교 문서의 작성을 맡는 승문원(承文院)의 지사(知事)도 겸대하였다. 그리고 고려사절요 편찬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그가 36세 때 문종이 재위 2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신숙주는 선왕의 행장을 지었는데, 이것은 문재(文才)뿐 아니라 그가 문종으로부터 지우를 받았던 각별한 관계 때문이었다. 이로써 신숙주의 12년에 걸친 집현전 시절은 종언을 고하고, 단종 대 이후 세조와 밀착된 정치가로서 새로운 길을 걷는다. 그는 성종 6년(1475) 59세 때 영의정으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많은 역정을 통해 화려한 족적을 남기지만, 젊은 시절 집현전 학사로서의 활약은 가장 빛나고 돋보이는 것이었다 하겠다.

4. 신숙주와 교유한 집현전 학자들

신숙주가 집현전 학사로 지내는 12년간 그와 교섭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은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 가운데 비교적 긴밀한 사이였으리라 여겨지는 이들을 편의상 첫째, 세종을 비롯한 왕실의 인사들, 둘째, 사가독서를 통해 친숙하게 사귀 친구들, 셋째, 훈민정음의 완성 및 운서의 정리 사업에 함께 참여했던 인물들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둘째와 셋째는 실제로 중복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을 각 인물별로 살피기로 한다.

(1) 세종(1397~1450)

세종과 신숙주의 긴밀한 관계는 이미 앞에서 간간이 설명한 바 있다. 세종이 신숙주를 사랑하고 신임한 까닭은 그가 빼어난 자질을 지녔으면서도 성실성을 지녔고, 또한 누구보다도 근면한 수학 자세를 지닌 때문이었다. 많은 사람이 회피하는 일본 통신사 서장관의 직을 맡기로 했을 당시 그는 병을 앓은 뒤끝으로 건강이 안 좋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사행(使行)에 참가하려 하자 세종은 직접 인견하여 의사를 타진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결국 신숙주가 험난한 일본 사행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오자 왕은 그를 더욱 미답게 여겼던 것이다.

신숙주가 많은 책에 파문혀 독서하기 위해 교대를 자청하며 집현전 숙직을 자주 했었다는 얘기는 앞에서 한 바 있다. 그 무렵 어느 날 세종이 한밤중에 환관을 보내 집현전을 살피게 한 결과 신숙주가 단정히 앉아 독서에 열중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왕은 자신도 자지 않으면서 계속 동태를 살피게 하다가 새벽녘이 가까워 비로소 자리에 누워 잠들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어의(御衣)를 내려 덮어 주게 하였다. 이 일화는 조선 시대 내내 인구에 회자되었다.

수성의 군주로서 부국안민(富國安民)과 예속교화(禮俗教化)를 구현시켜 문화의 융성에 도달하는 것이 자신이 감당할 과업임을 깨달았던 세종은 집현전을 인재 양성과 과업 수행의 본거지로 삼았고, 신숙주는 바로 이 같은 집현

전의 학사로 발탁되어 세종 대가 문화의 황금기로 찬란하게 마무리되는 데 큰 구실을 했다. 세종으로서는 자식과 같은 연배의 이 빼어난 인재에 대해 더 너그러워진 자세로 사랑과 격려를 베풀 수 있었던 것이다.

(2) 문종(1414~1450)

문종은 인품이 관인(寬仁)하고 학문도 깊었다. 세종 대 말엽 세자로서 정무를 대행하는 일이 잦아 집현전 학사들과도 자주 접촉하였고 훈민정음 창제에도 중요한 구실을 했다. 이 무렵 세자가 큰 쟁반에 꿀을 가득 담아 집현전으로 보냈는데, 꿀이 비워지자 쟁반 위에 쓰인 세자의 탁월한 시와 친필이 나타나 학사들이 놀라고 감동했던 일도 있었다.

신숙주는 문종이 즉위한 후 특별한 지우를 받아 사헌부의 집의에 발탁되고 집현전 직제학으로 승진했음은 앞에서 말한 바 있다. 문종은 스스로 세종을 추모하는 시 한 구절을 지어 신숙주에게 보내면서 그 뒤를 잇는 연구(聯句)를 짓게 함으로써 과격적 예우를 베풀 적도 있다. 이처럼 가까운 관계 때문에 문종이 별세하자 그 행장을 신숙주가 썼던 것이다.

(3) 안평대군(1418 ~1453)

신숙주는 훈민정음 완성 작업과 관련하여 운회를 번역하는 일에 세자 및 수양대군(1417~1468), 안평대군과 동참하였는데, 수양대군과는 별다른 교류가 없었다. 그에 비해 명필로 널리 알려진 안평대군은 예술가적 풍류를 즐기면서 신숙주와 성삼문 등 집현전 학사들과도 자주 만나며 어울렸다. 안평대군은 세종이 내려준 비해당(匪懈堂)이란 호를 주로 썼던 바, 신숙주와 성삼문의 문집에는 이 당호(堂號)를 제목으로 내건 수많은 시가 나타난다.

세종 30년 어느 날에 안평대군은 안견이 그린 25세 때의 자기 초상화를 보여 주며 신숙주에게 찬문(贊文)을 부탁했다. 32세의 신숙주는 자기보다 한 살 연하의 이 왕자에게 「뛰어난 자태는 세상에서 제일이다(英姿絕世)」라는

칭찬을 보내면서도, 나이가 들수록 책임은 무거워지는 것이니 뒷날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초상화를 다시 보며 덕(德)과 도(道)를 찬양하는 글을 쓸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글을 보냄으로써 경계의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4) 성삼문(1418~1456)

성삼문과 신숙주는 각별한 사이였다. 둘 다 빼어난 자질을 지녔고, 사가 독서를 계기로 더없이 친숙한 관계가 맺어졌으며, 세종의 두 사람에 대한 기대와 사랑이 예사롭지 않았다. 신숙주가 12년에 걸쳐 집현전 학사로서 한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사람을 든다면 세종과 성삼문을 꼽게 될 것이다.

두 사람은 모두 가문 배경도 좋았고, 학술의 조예도 깊었으며, 시문은 당대 으뜸으로 이름을 날렸다. 앞서 서술한 바 있듯이 세종 말년에 명의 사신 예겸 등이 왔을 때, 신숙주와 성삼문이 시문을 주고 받으며 응대하여 큰 칭상을 받았는데, 당초 접반사 정인지가 상대하기 힘들어 이 두 사람을 내세웠던 것이다. 그런데, 성격은 다소 달라 성삼문이 직선적이고 열정적인 데 비해 신숙주는 침착하고 이지적이었다. 함께 요동에 여행하면서 수많은 시를 주고 받았는데, 성삼문이 「내 학문 그대처럼 정밀하지 못함을 부끄러워 하네」라고 한 데 비해 신숙주는 「그대 재주와 명성 중국을 뒤흔드네」라고 하였다.

두 사람은 함께 집현전 학사로 있으면서 세종 29년 가을 문과 중시에 응시하였다. 합격자 20명 가운데 8명이 우등자(優等者)였으나 더 이상 평가하기 어려워 세종에게 부탁하니, 왕은 크게 기뻐하면서, 팔준마(八駿馬)를 주제로 글을 짓게 하여 재시험을 보도록 했다. 이때 세종은 성삼문을 장원으로 뽑고, 신숙주를 4등으로 매겼다. 그들은 가장 가까운 친구인 동시에 훌륭한 경쟁자였다.

성삼문은 신숙주와 함께 세종 27년부터 세종의 명령에 따라 13회에 걸쳐 황찬을 찾아 요동에 다녀왔다. 훈민정음의 완성 및 운서 정리에 참여하는 8명의 연구 그룹 속에 두 사람은 함께 포함되었다. 성삼문도 신숙주에 못지않은

성음(聲音)의 대학자로 성장하였던 것 같다. 당시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가 한글 창제를 비판하며 세종과 불편한 관계에 놓여 있던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집현전은 젊은 신숙주와 성삼문 등이 세종의 절대적 지원 아래 주도적 위치를 차지한 가운데 활발히 움직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6) 이개(1417~1456)

이개는 사가독서를 함께 하였고, 역시 훈민정음 및 운서 연구에 참여하였으므로 신숙주의 집현전 활동에 있어서 매우 가까운 친구요 동료였다. 그는 이색의 증손이요, 이종선의 손자였는데, 세종 26년 왕을 호종하여 청주에 갔다가 마침 청명 때이므로 왕의 특별한 배려로 홀어머니가 계신 고향 한산(韓山)에 성묘를 위해 다녀올 수 있게 되었다. 그때 함께 왕을 호종한 신숙주는 지를 지어 축하해 주었다.

(7) 박팽년(1417~1456)

박팽년도 역시 사가독서와 훈민정음 연구의 두 가지 면에서 겹치는, 신숙주의 아주 가까운 지우였다. 그는 이개와 더불어 신숙주의 동갑 친구였으나, 과거 합격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신숙주가 일본에 통신사 서장관으로 가서 박다(博多)에서 사가독서를 함께 한 「산중구우」(山中舊友)들을 그리워하며 시를 띄울 때 박팽년의 이름을 앞세웠던 것이다.

(8) 하위지(1412~1456)

하위지는 사가독서를 함께 한 신숙주의 친구, 동료였다. 그러나 그의 나이가 5년 앞서는 까닭인지 둘 사이의 직접적 교섭을 알려 주는 자료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성삼문, 이개, 박팽년과 하위지는 사육신으로서 너무나 유명한 사람들이다.

(9) 이석형(1415~1478)

이석형은 신숙주와 사기독서를 함께 하였으나, 훈민정음과 운서 연구에는 끼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소과와 대과에 걸쳐 3과에 장원을 한 수재였고, 집현전 학사로서 치평요람과 고려사 편찬에 참여하였다. 신숙주는 이석형과 꾸준히 교분을 나누었고, 뒷날 세조 집권 이후에도 두 사람은 시를 주고 받으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10) 정인지(1396~1478)

정인지는 신숙주보다 21년이나 연상으로 한 세대 앞선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태종 때부터 문명을 드날린 그는 세종 10년 집현전 부제학에 임명되어 이 연구 기관의 성장에 크게 기여한 바 있는데, 세종 말엽 판서로서 예문관 대제학을 겸하여 학술 문화를 대표하는 위치에 올라 훈민정음 창제를 돕는 등 큰 구실을 했다. 세조의 집권을 도왔고, 뒤에 영의정을 역임했다.

신숙주에게 정인지는 어려운 존재였다. 그가 「은부(恩傳)」라고 말했던 점으로 보아 신숙주가 본 과거 시험의 시관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뿐만 아니라 젊은 나이로 왕의 총애를 받으며 문명을 드날리게 된 신숙주로서는 문학의 종사(宗師)로서 대선배인 정인지를 조심스럽게 대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시기 두 사람의 직접적 교류를 말해 주는 자료는 찾기 어렵지만, 뒷날 신숙주가 59세의 나이로 별세하자 80세의 정인지가 쓴 만장(挽章)을 접할 수 있다.

(11) 최항(1409~1474)

최항은 운회의 번역으로부터 시작하여 훈민정음 완성 및 동국정운 편찬에 이르는 일련의 사업에 신숙주와 함께 참여하였다. 신숙주보다 8년 연장이지만, 함께 어울리며 집현전 학사로 활동하고, 예문관 관원도 겸하였으며, 고려사 편찬 사업에 참여하였다. 세조 대 이후의 여러 편찬 사업에서도 활동하였

고, 영의정에까지 올랐다.

신숙주와는 일찍부터 교유가 있었다. 그가 일본 통신사 서장관으로 떠날 때 긴 시를 지어 장도를 축하하였고, 성삼문과 더불어 요동으로 황찬을 만나러 갈 때에도 역시 시를 써 주었다. 세조 집권 이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12) 강희안(1417~1464)

강희안은 훈민정음 및 운서 연구에 참여하였으나 당시 집현전 학사는 아니었다. 세종의 인척이기도 했던 강희안은 시·서·화에 뛰어난 인재였고, 세종 대 말엽에는 집현전 직제학에 임용되어 학사로서 근무하였다.

신숙주와는 매우 절친한 사이여서 집현전 학사 시절 그가 강희안에게 시를 써 보내기도 했다. 세조 집권 이후 강희안은 근신하는 자세를 취하며 관찰사에까지 오르는데, 신숙주는 그에게 그림을 부탁해 10첩 병풍을 만든 일도 있었다.

(13) 이선로(? ~1453)

집현전 학사로서 훈민정음 및 운서 연구에 참여했던 이선로는 곧 병조정랑으로 전직되었다가 죄를 짓고 유배되었다. 단종 즉위 초에 다시 관직에 나갔으나 안평대군의 측근에서 활약하다가 계유정난 때 죽음을 당하였다. 신숙주와는 별다른 교분이 없었던 것 같다.

5. 맺음말

신숙주가 과거에 합격하여 관료에 나아갈 때의 조선 사회는 세종 대의 문화적 황금기가 한창 무르익는 중이었다. 세종의 문치 정치 아래 학술 연구 기관으로 설치되어 커다란 발전을 이룩한 집현전은 조선 사회의 유교화를 이끌어 나갈 인재의 양성이라는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수준 높은 편찬

제술 활동을 통해 빛나는 문화 발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 밑바탕에는 조선 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안정과 집현전 및 집현전 학사에 대한 세종의 원대한 정책과 따뜻한 배려가 깔려 있었다.

신숙주는 세종 대 말엽에 출사하여 그로부터 문종 대에 이르기까지 12년간 집현전 학사로 활동하는데, 이 기간은 문화·학술적인 면에서 그의 생애의 백미를 이룬다. 학자적 군주로서 치세를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인간적으로도 원숙한 경지에 있었던 세종은 수성의 군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소임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새로운 인재의 등용과 양성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신숙주는 바로 그에 부응할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을 지닌 채 집현전 학사로 발탁되어 스스로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었다. 거기에는 물론 그 동안 성장한 집현전의 학문적 수준과 분위기, 어깨를 나란히 하는 우수한 동료 친구들, 그리고 치밀하고 여유 있는 세종의 배려가 크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신숙주는 세종 대 문화적 발전의 절정이라고 할 훈민정음의 완성에 중요한 구실을 했던 것이다.

집현전에서 활동하는 동안 신숙주는 그곳의 많은 사람과 교유하였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세종과 ‘성삼문을 대표로 하는 사가독서 그룹’이었다. 걸출한 군왕다운 권위와 뛰어난 학자다운 능력을 아울러 갖춘 세종은 빼어난 자질을 지닌 신숙주를 충분히 감복시킬 수 있었고 그러한 가운데 신숙주는 자기 계발과 소임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 성삼문 등 사가독서 그룹의 집현전 학사들은 모두 뛰어난 인재로 능력있는 동료요, 신뢰할 수 있는 경쟁자였다. 그러므로 신숙주는 그들과 더불어 훌륭한 연대(팀워크)를 이루면서 세종의 시책 방향에 쫓아 그 시기를 문화의 황금기로 나아가게 하는 과업에 진력하여 빛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신항(1984). 「세종조의 어문 정책」. 『세종조 문화 연구』 II.
- 권연웅(1982). 「세종조의 경연과 유학」. 『세종조 문화 연구』 I.
- 김상기(1955). 「독서당(호당)고」. 『진단학보』 17집.
- 민현구(2002). 「세종대왕」. 『한국사시민강좌』 30.
- 이기문(1974). 「한글의 창제」. 『한국사』 11.
- 최승희(1966,1967). 「집현전 연구」. 『역사학보』 32, 33.
- 홍이섭(1971). 『세종대왕』.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보한재집(保閑齋集)』
 『근보집(謹甫集)』
 『세종실록(世宗實錄)』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
 『계원잡기(筆苑雜記)』
 『용재총화(慵齋叢話)』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